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2021년 6월 기도편지)

분주하게 섬기다 보니 어느덧 6월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전할 소식들이 밀려 소제목에 월도 함께 적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 동역자님들을 그리워하는 시온산이네가 안부 전합니다. 살롱!

[좋은 씨앗] - 2월 소식

마음속에 만가지 의구심이 일어나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마음이 일 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처음 청년들을 만나 그런 무게감 있는 질문을 하면 태국청년들이 늘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래에 제자양육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청년들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고 해내야 하는지는 질문할 때만 고민할 문제가 아님을 이들이 깨달아갑니다. 내일도 미래도 답이 없는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말이 더욱 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한 그 답을,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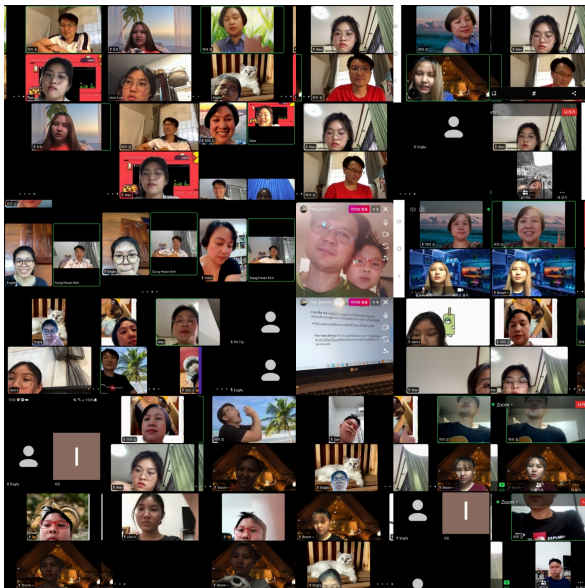
영에 관한 문제로 고심하는 청년에게 이런 말도 덧붙여줍니다. 니가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그분이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 가끔은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쉬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답이 무얼까, 하던 청년이 그 대답에 더 놀랍니다. 함께 호떡을 만들며 웃고 즐거워하며 고단했던 한 주간의 학습의 짐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내려 놓았기를,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주님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기도하며 제자양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증언하는 복음은, 나를 향해서도 말을 겁니다.

너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고.

언제나 부족하고 늘 바쁘고 고단해서 정작 쉬는 법을 제일 모르는 나 자신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 한 주가 되어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공동체] - 3월 소식

언제나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언제나 많은 기억들이 남는 주일, 바쁘고 정신없고 지치고 고단하지만 그래서 늘 충만하고 기쁜 맘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코로나시절에도 이렇게 만나고 부대끼고 알아가고 기억해주는 청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전 부터 라인 온라인 예배로 매주 만났던 우리 청년들을 이제 인스타에서 만나며 보고싶고 그리운 맘을 기도에 담습니다. 주일 저녁예배 마치고 돌아와 밤 9시에 드리는 인스타 라이브 예배는, 언제나 목이 쉬어있습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졸린 눈 비벼가며 열심히 전한 복음을 오래오래 '살아냈으면..' 그런 기도가 더 깊어지는 밤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복음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송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좌표] - 3월 소식

시험기간도 거의 끝나고 지독히 더운 송크란 가까운 시간, 이제 나래수완 대학교 근처는 한산해 질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잘 도착했는지 안부를 묻고, 몇 번으로 나눠 가졌던 종강기념 식사도 막바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도 쉽지않고 비대면 수업에 휴교로 인해 재개학 후 너무 바빠진 학생들의 삶이, 정말 불쌍할 정도로 빠듯합니다. 학기안에 끝내야 하는 여러 실습과 시험들로 금토일이 제일 바빠졌고 학생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모두들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부어도 미래는 더욱 불안할 뿐이고 인턴십조차 길이 막혀 직업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학기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방학이 되면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돕고 동생들을 돌봐야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일하기에 안타까운 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날은 맘이 아립니다. 저렇게 소중한 시

간에 학생들이 좀더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시간배분을 잘하도록 가이드 하는 선생이 없는 캠퍼스는, 그저 의무와 책임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경직된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변화를 꿈꾸지만 움직일 힘이 부족합니다. 그 곳에서 늘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결국 좀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일일거란 생각으로 먹고 나누고 어깨 두드려 격려합니다.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될 때마다 먹고, 한 두명씩 만나 미래를 이야기 하고 꿈이 무엇인지 묻는 일은, 고단하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는 코로나가 심포도 되고 멈춤도 된다던데, 저희의 좌표는 여전히 뻑뻑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물었고 고민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하루 저희의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고민할 것입니다. 해답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진리안의 자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떠나 밥 잘 먹는 녀석들 보면 든든합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 있던가, 하는 생각을 왜 시온산 아닌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가는 저희도 신기합니다.



어느 먼 훗날 기억하겠지.

아пп이 맛난 밥 해 주었다고.

그렇게 나를 예수님결로 데리고 갔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먹이리라.

그저 이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꿈꾸게 하시는 분] -3월 소식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록 움추러들고 시간과 재정을 절약하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인지상정을 늘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가 지말라 하는데 짐을 싸서 날아왔고 돌아와야 하지않아? 할 때 더 깊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시작한 모험이 아닙니다.

밤에 불을 꺼도 보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맘이 벅차 올라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던 새벽과 밤의 기록들이, 묵상노트에 적히고 기도로 찬양으로 다져지고 결국 살아낸 '오늘'이 되었던 날들...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꿈들이, 분명한 이끄심으로 현실이 되어갈 때 가장 먼저 놀라고 은혜누리는 것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꿈꾸게 하시는 분이 다시 작업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리를 지나며 중보하고 무반을 다니며 그림을 그립니다. 저 거리에 작은 공간 하나 두면 나무그늘 삼아 오가며 들어와 밥도 먹고 책도 먹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먹고 갈가난한 이들의 미소가 그려집니다. 돌아보니 거창하진 않아도 나를 잘 해 온 것 몇 가지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통점은 '일상의 모든 노력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라는 크고 원대한 그림앞에서, 갈 길 멀고 연약한 나 자신이 미답장아 보일 때 늘 떠올리는 첫 꿈처럼, 대단한 신것은 그분일 뿐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분의 꿈으로 충만하고 분주한 저희는, 바로 그때 그 그림속의 나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부모.형제.친구.은사님도 껴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코로나가 꺾을쏘냐! 언제나 우리는 RUN RUN RUN!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C.T. Studd

WEC pre CO에서 밥요절 대신 외워야 했던 이 문구가, 1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대단하고 주님은 때때로 가혹하시며 선교의 길은 멀게만 느껴졌는데..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만큼 부족하고, 주님은 끝없이 선하시며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 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달려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선교사 자신이 변하는 여정. 그래서 선교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일이며, 가장 고달프고도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그 꿈을 꾸시는 그대로 인해 행복합니다♡앞으로도 꼭 같이 RUN RUN RUN!^^



[선배님 질문있습니다!] - 3월 소식



보직으로 신입담당(Newcomer Supervisor)도 섬기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입 선교사님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3년차 들어가는 후배 선교사님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1차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3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신입들이 오면 매 6개월마다 평가서를 받습니다. 자기 평가를 거친 뒤 선배들과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을 4번 정도 거친 뒤에 정식 멤버로 승인을 받습니다. (필드마다 차이가

있어 2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후배가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경험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태국에 오게 되었는지, 2년 빠진 20년 선교여정에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물어왔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나누다 보니, 이제는 잊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특히 어떻게 현지인들과의 문화차이를 극복했는지, 나아가서 동료 선교사들과의 다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는데, 이 대목에서 현지인들에게는 잘 적응하고 자리를 잡은 것 같더니 같은 팀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쉽잖은 후배님의 행간도 읽어져 더 마음담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나는 태국이 너무 좋았어. 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온화함이 좋았고 그들의 문화가 아름다웠어. 그들이 미소를 사랑하고 자연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내가 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이웃이 되는 일이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더이상 한국인만이 아니거든. 반쯤은 태국사람처럼 반쯤은 한국사람처럼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 나쁜 일에는 태국사람처럼 비판을 하고 좋은 일에는 한국사람처럼 내 모국의 더 좋은 점을 이야기하게 되거든. 모두 내가 익숙해진 까닭인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로, 그리고 세월지나 정이 든 후에는 가족이라는 맘으로.나는 그렇게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거 같아.

왜 가족 있잖아. 내가 원해서 구성한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백프로 맞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가족이니까 지지해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족. 나에게 팀은 그런 의미야."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할 일은 희생과 헌신뿐이라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기대할바가 못되는게 팀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먼저 내려서 섬기겠다고 맘 먹으면 그도 나의 멘토가 됩니다. 처음 달려나올 때의 그 열정과 열심, 물불 안가리고 뛰어드는 열의, 논리적이거나 실제적이지 못해 늘 팀을 조마조마하게 하지만, 그들이 와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는 이제 소용없는 일이라 단정지은 그 일에 "why not?"을 외칠때, 십수년 전 그 첫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무릎꿇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계속 될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주실 그분의 마라



나타, 그날까지는 우리 모두 달려야 하고 섬겨야 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부디 후배 선교사님이, 이 인터뷰를 자신의 후배님과 하는 날에도 이 맘이 흘러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김은 곤하지만, 고단함 혹은 행복함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미함'에 눈을 두고 묵묵히 안내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거시는 주님의 기대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손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졸업장] - 3월 소식

지지난 주에 시온산은 방학을 했고 지난주 초에 시온이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짐을 싸서 1주일간 기도컨퍼런스에 달려가야 했고, 캠퍼- 콩월라이- 카오커를 돌며 했던 기도수련회에서 이리저리 섬기느라 바빴습니다.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송고란 명절 맞춰 급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로 격리야닌 격리 상황... 그 가운데 한국에서 신입 선교사들 두 가정의 태국에 도착해서 식사챙기고 집 알아보느라 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온이는 학생 대표로 졸업인사를 했고 총 4개의 우수상을 받으며 빛나는 졸업을 맞았습니다. 사실 많이 무덤덤한 부모인 저희에게도 이걸 참 의미있는 일인데, 어찌 된게 차분하게 앉아 그런 감상에 한번 젖어볼 시간이 안납니다.

조출하게 가족식사로 점심 한끼 하는 걸로 축하를 대신하고 짐꾸려 기도수련회로 달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할수 있는 말은, 주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는 것 뿐입니다. 내 아이가 전액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기쁜 것 보다, 코로나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상황이 더 발등에 불인 저희는, 아이들에게 마냥 좋은 부모는 못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속에 자라고 있는 너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냐,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가는 아이로 자라가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처럼만 우리 함께 선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행복하기를. 앞으로도 시온이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위해 늘 기도손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온이의 지난 11년간의 선교지 여정을 기도로 함께 해주신 이모 삼촌께 이 졸업의 기쁨을 나누며 감사 인사 드립니다. 팻타이공을 마구 쏘텐데. 멀리 계셔서 아쉽지 말입니다^^



[Prayer retreat 2021, 기도수련회] - 4월 소식



4월 5일부터 1주일간 캠퍼와 카오커에서 기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있어 이런 모임들이 쉽지않고 연중 모든 수련회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1년에 한 두번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이후의 사역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대신 이번 수련회는 모든 일정을 좀 더 개인적으로 조절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지켜가며 실행을 하느라 2배로 힘이 들었습니다. 숙소도 2곳으로 따로 잡아 분산하고 4일은 미팅룸을 빌려 기도회로 하되, 3일은 지역별로 4 그룹을 나눠 각각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수련회 중 캠퍼 교회와 콩월라이 교회를 심방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시대의 대면 만남은 언제나 쉽지않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있고 소중합니다. 부디 코로나시절이 끝나고 마음껏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땅의 소나기와 같습니다. 기도손 부탁드립니다.

[내리 사랑, 내리 은혜, 내리 치유] - 4월 소식

새로운 신입 선교사들이 오셨고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입담당 슈퍼바이저인 아짠 싸왕은 늦은 밤까지 영어 원서 전공서적 4권 분량은 족히 넘을 메뉴얼 붙들고 씨름하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아짠 말리는 독박 육훈 하며 팀 간식과 식사 챙기고 새로운 MK teacher 로 애돌보미 서비스, 재정파트 강의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시간표를 알뜰없이 채우시는지, 우리 청년들 고향가는 방학 되자마자 신입 후배님들 보내셔서 노는 일 없게 해 주십니다.

살살 하자, 적당히 하자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더 걸어가게 되고 좀 더 팔을 뻗게 되는 법입니다. 한 끼 밥만 할했는데 때마다 불러 손가락 하나 더 놓게 되고, 웰컴 선물만 챙길했는데 호텔에서 격리생활이 길어진 후배님들이 짬해 또 장을 한번 더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집중 언어훈련 받으러 1달간 딱으로 떠나는 두 가정을 두손 무겁게 돌려보내며, 받은 사랑도 갚지만 못 받은 사랑도 헤아려 흘려보내는게 인생이라 여깁니다.

재정작업 준비하느라 2일만 말기로 했던 엠케이 지아가 시온산을 너무 좋아라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재정준비하랴, 식사챙기랴, 너무 바쁘는데, 문득 지난날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들 있는 선배집에 가고 싶어 노래를 불렀는데, 낮가리고 사람접대 힘들어하던 그 선교사님 집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집에 오고싶어하는 고마운 꼬마손님을 원없이 불러 주어야겠다, 맘 먹습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듯이 치유도 내리 치유라고 믿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갚는게 사랑이 아니고 받은 상처 거기서 치유받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 다른 곳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서운함은 또 누군가에게 타산지석삼아 사랑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시온산이도 동생이랑 놀아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려 1년 반을 기다려 비자를 받고 신입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두 가정이 은혜안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내려 이 땅을 위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사역자 되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5월 4째주

비자연장의 시즌이 돌아와서 이민국과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하필이면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중이라 오가는 차 안에서부터 도착해서도 양해를 구해가며 수업을 받아가며 비자 작업을 해야했습니다.

노동청에선 코로나 시국이라고 직원들은 에어컨 되는 실내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40도 더위에 다 밖에서 대기해야했습니다. 3시간이 넘어가면서 두통이 시작됐고, 결국 점심시간에 걸려 9시에 접수된 일이 3시에 끝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짬이 나는 틈을 타서 신입 선교사님 집 셋팅을 위해 프린터기, 입학하게 된 그 자녀분 학용품, 위생용품등을 사러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섬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고국의 가족들께 마침 전화가 왔는데, 근래에는 전화하실때 마다 '신입 선교사 집 구하러 다니는 중이다', '가구 가전 대신 사러 가는 중이다', '밀반찬 만들고 생필품 사서 갖다주러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하루 전이라 청소하러 간다',했을 땐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는거니?" 하시며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까지 합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한 일이라면, 더구나 이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더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건 해야만 합니다. 이전보다 대면하여 현지인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방역수칙을 뚫고 그 마음 곁에 다가가기도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그들을 향한 기도로 계속 전진할 때 성령님께서 더욱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비록 섬김은 고단하고 코로나 시절의 모든 문들은 닫혀있는 듯 보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오늘이 있기에 내일 거들 또 하나의 열매를 약속받는 우리입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 주시길 기도손 모아주세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1. 현지인 리더 '잉'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일구기 원하는 저희의 꿈과 같이 제자들이 든든히 서도록. 특별히 현지인 리더 '잉' 가족의 심한 반대가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현지인 리더 '잉' 이 잘 자라 손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절이 오도록
2. Wec 태국 필드에서 저희가 맡은 보직이 많은데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길. 아울러 강철체력 또한 더해 주셔서 넉넉히 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개척 사역과 팀 보직을 병행할 때 무리 없도록
3. 6월 중순이 되면 나래수완 대학교가 개강을 하는데 방콕, 치앙마이 등지의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의 문이 닫히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응답의 문이 될 수 있도록
4. 시온,산이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현지학교에서 현지인처럼 잘 자라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의 반만큼 만이라도 주셔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한 마디가 태산을 옮기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